

故 한주호 준위·탤런트 한혜숙·조용석 전 대불련 회장

올해의 불자대상 선정

21일 시상식

불기 2554년 불자대상에 고(故) 한주호 준위, 탤런트 한혜숙 씨, 조용석 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대불련) 회장이 선정됐다.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 11일 불자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고 한주호 불자는 천안함 침몰사건 당시 앞장서 실종자 구조에 나서다 순직하면서, 불교의 보살도 정신을 국민들의 가슴 속에 아로새겼다. 1958년생으로 1975년 특전 27차 해군 부사관으로 군에 입대해 1976년 미국 해병대 특수전 단기과정을 수료했다. 대한민국 해군 UDT로 활동하며 2009년 청해부대 일원으로 소말리아에 파병돼 수차례 해적을 퇴치하는 전공을 세웠다.

한혜숙 불자(법명 관음성)는 1951년생으로 불교극의 대명사 '등신불'



故 한주호 준위



한혜숙



조용석

에 출연하는 등 방송과 연극무대에서 원숙한 중견배우의 모습을 보여줬다. 1987년 한국방송대상 TV연기자상, 2006년 SBS 연기대상 등을 수상했다. 불교여성개발원 제2차 여성불자 108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조용석 불자는 1983년생으로 2007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을 역임하며 청년포교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현재 대불련 중앙간사를 맡고 있다.

특히 세상을 떠난 한주호 불자와

교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청년 불자를 치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불자대상은 불법홍포와 한국 불교 위상제고, 불자의 자긍심 고취, 국가 및 사회발전에 공로가 큰 불자들이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제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열리며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직접 시상할 예정이다.

장영섭 기자 fuei@ibulgyo.com



“총무원장 스님
예방한
동자 스님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단기출가한 조계종 '동자 스님'들이 지난 14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인사를 드렸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이날 동자스님들은 총무원장 스님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인사말과 그림을 넣은 도화지를 선물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조계사 큰 스님들이 오셨네요”면서 환한 미소를 지은 후 학용품, 인형, 단주 등을 선물하고 일일이 손을 잡아 주었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대거 확인

불교신문에 기고·칼럼·불교설화 등 60여편

한국불교·종단 향한 날카로운 비판 애정 표현

“출간 어려워 영인본 보급”

을 한해 ‘무소유’를 사회에 화두로 던지며 입작한 법정스님이 불교신문을 통해 발표한 글이 모두 63편으로 확인됐다. 스님의 원고는 불교신문의 전신인 ‘대한불교’에 게재된 것으로, 1963부터 1977년까지 15년간 게재된 것이다.

▶관련기사 6편

이번에 발견된 원고는 법정스님이 본격적인 집필활동을 시작하기 전 작품들로,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새롭게 조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법정스님의 글은

기고문과 칼럼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에세이와 시, 불교설화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특히 불교설화는 본지와 첫 인연을 맺은 원고로서 의미가 깊다. 1960년 봄부터 이듬해 여름까지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운허스님과 함께 〈불교사전〉을 편찬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한 스님은 1963년 4월 ‘어진사슴’이라는 제목을 시작으로 불교설화를 연재했다.

1964년 동국역경원 출판에 참여한 스님은 역경위원을 맡으며, 〈불설구색녹경〉〈대장엄논경〉등에 나타난

애기를 번역해 총 12편의 설화를 소개했다.

이후 스님은 1977년까지 본지 주필과 논설위원을 맡으며 한국불교와 종단의 발전을 위한 제언과 불교 내부의 부조리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1964년에 발표한 ‘부처님전신서’를 비롯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1965년), ‘침묵은 범죄다’, ‘불한테는 미안하지만’(이상 1970년)이라는 기고문은 이를 대변해준다. 이와 같은 기고문과 칼럼은 ‘맑고 향기롭게’로 대변되는 법정스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

‘부처님 생애’ 독후감 대상 이지만씨 ‘영예’

조계종출판사, 수상작 17편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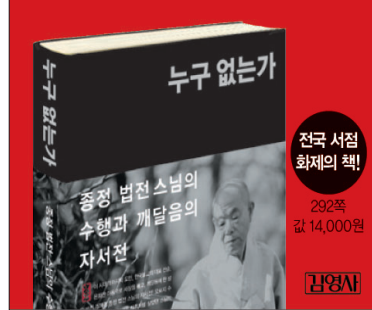
조계종출판사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부처님의 생애〉독후감 대회에서 이지만씨(대구광역시)가 대상을 차지해 인도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됐다. 또 중국 불교성지순례를 부상으로 받은 최우수상에는 이현수

씨(수원시), 우수상은 김창모씨(충남 계룡시) 김지훈씨(경기 성남시) 구희철씨(서울 신지원(서울 동대부고) 박나정(한양사대부고) 등이 차지했다.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한 이 대회는 전국에서 100여편의 작품이 접수돼 1차 2차 심사를 거쳐 지난 11일 최종 수상자가 결정됐으며, 시상식은 1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장 계성스님(조계종 포교부장)은 “자신만의 고유한 표현과 현실에서 응용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심사했다”며 수작이 많이 들어와 상당한 경합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kimjoo@ibulgyo.com

조계종 종정 법정스님의 수행과 깨달음의 자서전 누구 없는가



초임주지자격연수 교육

6월3일부터 6일간 실시

불기 2554년 상반기 조계종 초임 주지자격연수교육이 오는 6월3일부터 8일까지 5박6일간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시행된다.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이 주최하는 이번 연수교육은 ‘주지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총론, 사찰총무재무행정, 사찰경영, 사찰부동산등기 실제, 신도관리

와 조직화, 국고보조금 신청절차와 방법 등 주지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강의로 구성된다.

본말사주지인사규정 제9조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 처음으로 말사 주지에 취임하고자 하는 스님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주지임명을 받은 스님도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원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씩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장영섭 기자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교지도자 대국민 호소문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대 국민 호소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6월 2일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명선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거에 대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르고 깨끗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당선 되느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 당선 되었느냐가 더 중요한 규범이 되어야 하며, 결과와 더불어 과정이 중요시되고, 대립 보다는 상생의 원리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권자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할 때는 바로 투표할 때입니다. 더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여덟 장의 투표지로 지방자치와 교육의 미래를 이끌 지도자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정책과 정견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소극적인 참여보다는 소신 투표를 통하여 유권자의 권리를堂堂히 행사함으로써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7대 종교 지도자들은 6.2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첫째, 민주사회 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한 바르고 깨끗한 선거 풍토 정착을 위하여 우리 모두 적극 노력합시다.

둘째, 올바른 선택을 위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후보자의 정책·정견을 꼼꼼히 살펴보는 소신 투표에 우리 모두 적극 참여 합시다.

셋째, 유권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지방선거가 되게 합시다.

2010. 5. 10

(사)한국종교지도자 협의회

공동대표 의장	이 광 선(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공 동 대 표 자	승(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공 동 대 표	김 회 중(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대주교)
공 동 대 표	김 주 원(원불교 교정원장)
공 동 대 표	최 근 덕(유교 성균관장)
공 동 대 표	임 윤 길(천도교 교령)
공 동 대 표	한 양 원(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